

# 범죄피해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Victims of Crime

심혜인\*

Sim, Hye-In

### 요약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 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eywords** : 노인범죄피해, 독거노인, 가구노출,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 1. 서론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표 피해자 연령 중 61세 이상의 연령 구성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61세 이상의 범죄피해 건수는 160,488건으로 구성비는 1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유형 중에서는 사기범죄피해(36,367명)가 가장 많았으며, 절도범죄 피해(25,219명)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노인사기 범죄피해경험과 지역의 무질서와의 영향관계(이은주, 2016), 노인의 비공식적 신뢰수준과 사기범죄피해경험(김정원, 2017), 노인 거주지 환경과 절도범죄의 영향관계(Bamzar, Ceccato, 2016), 경제적 수준 및 취약성과 노인1인 가구의 범죄피해경험과의 영향관계(선한이, 조운오, 2020) 등 노인범죄피해 영향요인과 관련된 실증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노인의 특성을 연도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본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연도별 자료에서 노인의 범죄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2014년에는 총 1,921명의 노인 중 3.2%(62명), 2016년에는 총 2,935명의 노인 중 2.6%(77명), 2018년에는 총 2,707명의 노인 중 2.0%(55명)의 범죄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범죄피해 영향요인에 대하여 범죄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주거침입범죄피해에 가구노출이 재산범죄피해에 방법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요인들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심혜인, 2022). 노인범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 특히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범죄피해조사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범죄유형을 고려해 볼 때, 김민영 외(2018)의 연구에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인 가구특성(1인가구, 가구노출), 지역사회 수준(물리적 무질서, 사회적무질서) 중에서 재산범죄, 주거침입범죄와의 영향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도별 노인범죄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 정희원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crimesim@ysu.ac.kr

### 3. 결론

연도별 노인범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3.1.과 같다. 2014년 노인범죄피해 영향요인은 사회적 무질서(Exp(B)=1.15, p<.05) 수준이 높은 노인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8년은 공통적으로 독거노인의 범죄피해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Exp(B)=2.28, p<.01), 2018년 Exp(B)=2.46, p<.01). 또한 가구노출 수준이 높은 노인의 범죄피해 경험이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Exp(B)=1.31, p<.05), 2018년 Exp(B)=1.33, p<.05). 반면에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은 노인의 범죄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1.14, p<.05).

#### 3.1. 노인범죄피해 영향요인

변수	2014년			2016년			2018년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ref=남성)	-.29	.28	.75	-.40	.25	.67	.04	.30	1.04
독거여부(ref=동거인 있음)	.36	.30	1.44	.82	.29	2.28**	.90	.33	2.46**
장애여부(ref=장애 없음)	.16	.61	1.18	-.03	.53	.97	.27	.53	1.31
소득수준	.07	.12	1.07	-.01	.09	.99	.01	.10	1.01
단독주택(ref=기타)	.46	.36	1.59	.02	.33	1.02	.27	.36	1.31
방법수준	.04	.08	1.05	.03	.08	1.03	.12	.08	1.12
가구노출	.06	.13	1.06	.27	.12	1.31*	.28	.14	1.33*
물리적 무질서	.09	.07	1.09	.13	.06	1.14*	.07	.08	1.07
사회적 무질서	.14	.07	1.15*	-.03	.06	.97	.06	.07	1.06
모형 요약	X <sup>2</sup> =17.438*(df=9) -2Log우도=530.289 Cox&Snell R <sup>2</sup> =.009 Nagelkerke R <sup>2</sup> =.036			X <sup>2</sup> =23.633***(df=9) -2Log우도=688.990 Cox&Snell R <sup>2</sup> =.008 Nagelkerke R <sup>2</sup> =.037			X <sup>2</sup> =18.254*(df=9) -2Log우도=521.445 Cox&Snell R <sup>2</sup> =.007 Nagelkerke R <sup>2</sup> =.037		

#### 참고문헌

경찰청. (2021). 경찰범죄통계 2021. pp.1~743.

김민영, 한민경, 박희정. (201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B-01. pp.1~543.

김정원. (2017). 사기범죄 피해 요인의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선한이, 조윤오. (2020).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과 범죄 · 차별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4(3), pp.315~339.

심혜인. (2022). 노인의 범죄피해 예측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8, pp.69~86.

이은주. (2016). 노인대상 사기피해 및 반복사기피해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4). pp. 169~196.

Bamzar, R., & Ceccato, V. (2016). The regionalecology of elderly falls in Sweden. GeoJournal, 81(1), pp.23~36.

Connor, J.J. (1976) Analysis of Structural Member System,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Muspratt, M.A. (1972) Elastic design of slabs for uniformly distributed loads, Computers & Structures, 2(6), pp.893~895.